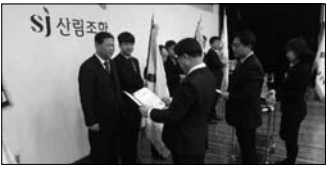


지역 매아리



부안군산림조합, 2017년 경영평가 우수상 수상

부안군산림조합이 22일 2017년도 경영평가 우수상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경영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안군 산림조합은 오세준조합장이 취임한 이후에 2015년도 5억 5천만 원, 2016년도 6억 8천만 원의 당기수익을 올려 전북도 1위, 전국 142개 조합 중 12위의 대성적을 올렸는데 2017년도에도 6억 7천만 원의 수익으로 1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고, 금융분야, 조합원 가입실적, 산림조합 상호 등 각 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하여 경영평가 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한편 오세준 조합장은 이번 우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3000여 조합원을 비롯하여 부안군민과 함께 하는 조합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고품질 체리 생산 정지전정 현장실습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22일 고품질 체리 생산을 위한 교육을 가졌다.

기술센터는 이날 입입면 체리과원에서 체리재배농가 25명을 대상으로 정지전정 실습교육을 가졌다.

정지전정이란 과일나무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가지의 골격을 계획적으로 구성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유인(誘引),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교육은 기술센터 이주연 과수담당장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시연으로 진행됐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짧은 세대의 체리 소비 증가와 함께 왜화대목(矮化臺木) 절목 재배를 할 때 나무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대목) 재배에 따른 수확의 용이성 등으로 재배 면적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읍 10ha 등 현재 전국 재배면적은 500ha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체리가 정읍의 새로운 소득작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배교육과 지도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또 체리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재배할 품종의 특성이나 재배 예정지의 토질과 기후여건, 농작업 능력에 따른 경영규모, 판매처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신청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봄 축제 준비 한창

###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우리꽃 자생화전시회·자생차 페스티벌

정읍시가 봄을 앞두고 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새봄을 맞아 다양한 자생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고, 천년의 향을 품고 있는 정읍 자생차의 향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

시에 따르면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정읍천 어린이 축구장(정읍시 벚꽃로 401)에서 제14회 자생화 전시회와 제7회 자생차 페스티벌이 열린다.

자생화 전시회에서는 초본류와 목본류 난류 등 5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미니분재 30점도 진열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생차 페스티벌에서는 녹차와 발효차, 여주, 구절초, 알로에차 등 정읍에서 생산되는 고급차 류(類)를 만나고 시음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화사한 자생화 사이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대 행사로 자생화 판매와 베리류



새봄을 맞아 다양한 자생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고, 천년의 향을 품고 있는 정읍 자생차의 향을 만끽할 수 있는 제14회 자생화 전시회와 제7회 자생차 페스티벌이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정읍천 어린이 축구장에서 열린다.

시음, 단풍미인 소풍물, 원예치료와 함께 회전 다트와 부호 던지기도 진행되고, 포토존 등 이벤트 존도 설치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한편 우리꽃 자생화 전시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전국 최고의 자생화 축제

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정읍시민과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봄을 일러는 전령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 자생차 페스티벌은 정읍은 물론 우리나라 차 문화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군,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

### 5월 15일까지 산불종합대책상황실 설치·운영

고창군이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본격적으로 설치 운영 하는 등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총 88명의 산불관련 인원(감시원44명, 진화대 44명)을 배치해 산불예방과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했으며 특히 홍덕면 용반리 산불헬기 계류장에는 전라북

도에서 임차하는 헬기를 2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배치하여 산불예방 홍보와 초동진화에 활용한다.

또한 산불 없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하여 382개 마을에 대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서약서'를 받았고 산불 취약지는 오는 3월 10일까지 산림인접 100m내 지역을 소각하는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

림이나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은 합부로 소각하지 말고 반드시 읍면사무소에 공동소각이나 수거를 요청하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산불 없는 고창군 만들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고창군, '우리집 수돗물 안심제' 운영... 26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신청·접수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개인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채수해 수질검사를 해 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제'를 운영한다.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희망하는 군민의 신청을 받아 매월 순차적으로 5가구 내에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 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제'를 운

영할 계획이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제'는 지난 2016년에 시범 운영되어 군민들의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질검사 항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아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등 총 10가지 항목이다.

사용 중인 수돗물의 이상이 있는 가정에서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제'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정집 수돗물 검사 신청은 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화(063-560-8988) 또는 방문하면 되고, 선정된 신청인과 일정 협의 후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 고창지역자활센터-다솜건축 지역사회 환원 실천 앞장

고창지역자활센터가 자활기업 다솜건축과 함께 지역사회 환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며,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해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다.

다솜건축은 지난 2007년 9월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 황현식 대표를 주축으로 17명이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다.

다솜건축 황현식 대표를 비롯한 참여자들은 올 1월 자활사업을 통해 얻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저소득가구 37가구를 선정하여 300만원 상당의 도배 등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환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지역자활센터 이충기 센터장은 "다솜건축은 올해도 군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 등을 비롯해 일 반 의주사업, 지역연계사업 등 함께 잘 사는 고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탄력'

정읍시는 지난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 경제발전위원회를 열어 연2지구와 풍월1지구 1140필지(35만 8838.3㎡)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연2지구와 풍월1지구는 지적 불부합 지(地)가 흩어져 있어 경계분쟁과 토지 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으로,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 이번엔 경계 결정까지 완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중 연2지구는 2017년에 끝난 연2지구와 인접해 있어 연계 추진된 사업지구이다.

이번 사업에 따라 연지동의 서부로를 가로지르는 옛 도심지역 토지 대부분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경계 결정 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된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련해 시는 지난 2012년부터 6억 8000만원을 들여 이번 경계결정이 완료된 2개 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올해도 국비 2억여원을 들여 시가지와 신월동 일부(조선지구)와 신대인동 신대인지구(신대인지구)일대 사업을 지구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토지 소유자 동의율이 2/3를 넘어야 하는 등 절차에 따라 전북도에 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군립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고창군립도서관과 성호도서관이 일 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한다.

고창군립도서관은 지난해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냥송·그림과 만나다'를 운영해 시와 캘리그래피가 함께하는 감성 충전 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군립도서관에서 오는 28일 '바스크림 만들기'(오후 7시), 성호도서관에서 '주부'를 위한 생활공예 스트링아트(오후 10시)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대출 권수를 평소의 2배인 10권까지 확대 시행하는 '두 배로 Day'를 통해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풍성한 문화가 있는 날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혜택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 750ml 1ea/12%

GIFT SET 4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 375ml 5ea/13%

GIFT SET 6 | 500ml 2ea/12%, 목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